

# 표준화유관기관소식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 획득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섬유분야 국내 첫 번째 인정

KATRI 한국의류시험연구원(원장 박장형)이 최근 한국제품인증기구[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약칭:KAS]로부터 섬유제품분야 최초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을 획득(인정번호:KAS-P-010)하였다.



이번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은 기존의 친환경제품인증제도인 EQ(Eco-Quality)인증제도가 국제규격인 ISO/IEC Guide 65 및 IAF(국제인증협의회)에서 정한 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으로 KATRI의 인증업무 역량이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2001년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도입한 적합성평가제도로써 기업이 인증신청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도입하는 투명성 높은 선진국형 인증제도이며, 2008년 8월 현재 KATRI를 포함하여 9개 기관이 인정을 획득하고 있다. 또한, 인증기관의 자체 규격이 아닌 국제규격에 의한 회원간 공동규격을 사용하여 제품인증을 수행함으로써 제품구

매자 및 금융기관 등의 신뢰도 확보에 유리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KATRI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인제품인증마크인 EQ마크는 유럽 Eco-Tex Standard 100에 준하는 포류알데하이드 등 120여종의 인체에 해로운 유해화학물질을 최첨단 시설을 이용하여 시험·검사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는 친환경마크로서, EQ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인증표시제품을 구입하게 되어 소비자와 기업을 모두 만족시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제품에 대한 꾸준한 매출 증가와 소비생활 양식의 변화로 비추어볼 때 향후 업무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크의 신뢰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KATRI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한국인증기구, 약칭:KOSIAS으로부터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이며,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생활용품안전인증기관과 자율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고, 금번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국제적인 시험·검사·인증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 기술표준2008.9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KATRI, 체코 ITC 업무협약 체결

## EU 공인인증기관과 협력의 장열어

(재)한국 의류시험연구원(KATRI, 원장 박창형)은 8월 26일사 체코의 최대 인증기관인 ITC (Institute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와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렀다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한-EU FTA에서도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ITC는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전세계 8 개국에 진출하고 있으며, 섬유제품, 화학, 식품, 연료, 전기, 건축, 환경 등 거의 전 분야의 시험, 인증을 수행하는 EU 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 중 하나이다. 특히 개인보호구(PPE), 완구, 의류 기기, 도목선유 등 8개 분야의 CE 인증기관이기도 하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섬유제품 및 개인보호구(PPE)에 대한 유럽 시장 수출시 인증 요구 및 국내 시험성적서 불인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해소해 줌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을 돕고, 나아가 국내 시험 데이터를 유럽 등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기존의 아시아, 미국 뿐 아니라 유럽의 섬유산업에 대한 이해증진, 정보교류 및 기술협력에 실질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최초로 유럽 보호복 분야의 시장 진출이 확정화되어 국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그 이외의 분야에서도 시험·분석 시장을 개척하는 데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술표준2008.9

## 협회,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온라인 이벤트 실시



한국계량측정협회는 법정계량단위의 올바른 정착과 사용유도를 위해 지난 8월 18일 부터 31일까지 법정계량단위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이번 온라인 이벤트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협회 홈페이지(www.kasto.or.kr)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사용하면 편하고 이익이 되는 법정계량단위'라는 주제하에 법정계량단위 사용 경험담 공모전, 알쏭달쏭 단위를 맞춰라, 틀린그림 찾기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협회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비법정계량단위인 평, 돈 단위에서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 $m^2$ ), 그램(g) 등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실생활에서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기술표준 20089

##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사실상 국제표준 지원체계 구축사업 중 윤활제분야 전담기관으로 지정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원장 김윤광)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실상 국제표준 지원체계 구축사업에서 대응전담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은 기계·재료분야와 유화제품분야에 있어 미국의 대표적인 사실상 국제표준인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을 위주로 한 대응전담반을 조직하고 본격적인 지원구축사업의 가동에 들어갔다.

현재 국내 윤활제 분야의 독자적인 고유기술도 상당히 개발되었고 공과대학에서는 윤활학문을 전공하는 트라이볼러지 (Tribology / Lubrication Management)센터가 설립되어 이를 연구하는 학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무엇보다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힘입어 자동차 / 기계공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이제는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기술로 윤활제를 개발하고 자국의 제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입장으로 입지가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을 비롯해 사실상 국제표준인 ASTM을 적용하는 국가로 수출을 할 경우 수출국인 우리로서는 수입국의 규제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윤활제품에 대한 품질기준과 시험방법, 시험기기의 요건들이 한국산업규격(KS)과는 너무도 상이한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공업 중 윤활제분야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기술을 축적해온 우리 연구원은 금번 사실상 국제표준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관련업체와 보조를 맞추어 ASTM TC분야별로 대응전담조직을 구성해 현황 파악과 대응세부전략을 수립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특히 수출비중이 큰 품목과 ASTM의 상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지대한 품목부터 발굴하여 순차적으로 이를 개정함으로써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우리 연구원과 기술전문가가 ASTM에 가입해 관련 TC에서 적극 활동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업체에 실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표준 20089

## 국제환경규제 및 해외인증업무 설명회 개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원장 조기성)은 2008년 8월 27일, 경상남도 김해시 의생명센터에서 REACH, RoHS 등의 국제환경규제와 CE인증 등 해외인증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경남지역의 압력용기 및 기계류 업체 19개사 21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업무에 대한 소개와 함께 2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EU REACH(신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개요와 적용대상 및 사전등록 절차,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증분야를 지닌 CE인증제도와 RoHS 등 시험분석업무에 대한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현재 업종별, 지역별로 REACH, RoHS, CE인증과 관련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환경규제와 해외인증을 지원받기 어려운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아직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향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기술표준 20089

## 한국표준협회

# ‘2008년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막

-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9월 1일(월)부터
- 4박 5일간 243개 우수 분임조가 금, 은, 동메달에 도전

한국표준협회(회장 최갑홍)가 주관하는 ‘2008년도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남인석 기술표준원장, 김용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상천 경상북도의회의장, 최갑홍 한국표준협회장 등 1,0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9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

올해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총 559개 분임조가 예선대회에 출전하였으며, 그중 대기업 98개, 중소기업 39개, 공기업 및 공공부문 85개, 서비스 21개 등 총 243개 분임조가 우수분임조로 선발되어 전국대회에 참가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제조업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던 분임조활동에서 벗어나 아시아나항공, 삼성서울병원, 금호리조트, 라마다서울호텔 등 서비스업종과 공공기관(철도청, 공군, 발전소 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 보다 높은 차원의 개선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삼성전자 부천 사업부의 중국법인인 용신, 성광 분임조가 출전하는 등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해외 현지법인들의 분임조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차후에는 좀 더 많은 해외 법인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2008년도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회장 최갑홍)가 주관하며, 지식경제부가 후원한다. 대회성적에 따라 우수분임조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 명의의 금, 은, 동메달을 수여받게 된다.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품질분임조 활동을 통해 개선한 산업계의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품질경쟁력 향상에 기여코자 시작되었으며 1975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34회째를 맞이했다.

| 기술표준2008.9